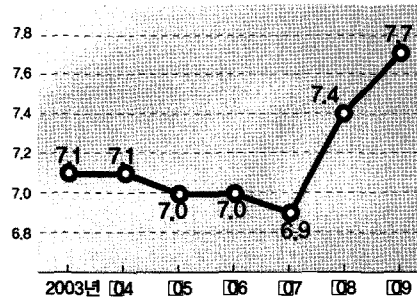


LPG경차 비싸서 안팔린다

파이낸셜뉴스 조용성기자

경차보급 확대정책이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하는 경차의 시판을 허용, LPG경차 모델이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게 책정돼 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

전체 승용차 판매량 중 경차비중 추이
(단위:%)



지난달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 모닝의 LPG모델이 출시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GM대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LPG모델이 판매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LPG경차는 경차보급 확대라는 취지하에 지난해부터 판매가 허용됐다.

지난해 출시된 모닝 LPG모델의 경우 공인연비(자동 14.5km/l)와 CO₂ 배출 감축량(자동 122g/km)이 국내 LPG차량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저렴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혜택이 부여되면서 경차 판매 촉진이 기대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경차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승용차 등록대수 중 경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7%로 이탈리아(55.0%), 프랑스(39.0%), 일본(26.6%)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2006년 경차 등록비율인 7.0%와 비교해도 불과 0.7%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차 LPG모델은 우선 가격이 높다. 모닝 LPG모델의 기본형 가격은 898만원으로 가솔린모델의 기본가격인 714만원보다 184만원이 비싸다. 무려 20%가량 차이가 난다. 모닝 LPG모델의 고급형 가격은 1044만원으로 프라이드의 기본형(989만원)보다 비싸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의 LPG모델은 기본형이 1040만원으로 가솔린모델의 기본형보다 100만원이 비싸다. 중형차의 경우 LPG모델이 가솔린모델보다 가격이 5~10%가량 저렴하게 출시되는 데 비해 경차는 LPG모델이 더 비싸다. 고객들로서는 LPG경차를 구매할 메리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모닝 판매량에서 LPG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에 그쳤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LPG 엔진의 원가가 비싸며 경차에는 더 많은 안전장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데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원대 임종한 교수는 “중형차와 달리 유독 경차의 LPG모델만 가솔린모델에 비해 고가일 이 유가 없다”며 “소비자들이 자동차사의 불합리한 가격 책정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정부가 펼쳤던 노후차 세제지원책도 중대형차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경차 판매가 주춤했다”면서 “경차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